

2017 동계 이화봉사단 국내교육봉사

전라북도 장수군
- 산서지역아동센터



2018. 1

황*빈

처음 이화봉사단에 지원할 때에는 방학 때 하나의 활동을 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단순히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5일 간의 활동은 저에게 많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캠프 첫 날의 저는 캠프 선생님으로서 단순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만 학생들을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가르쳐야 학생들이 좋아할까, 이 용어는 어떻게 풀어서 설명할까와 같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학습적인' 것을 준비해 두 번째 날에 아이들을 만나니, 아이들은 동심의, 새로운 시각에서 저에게 생각지도 못한 것을 질문했습니다. 물론 준비해 간 '학습적인' 것도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해결해야 할 때에 저는 순간의 기지를 발휘해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는 분명 사회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므로 저에게 사회로 나가는 하나의 연습의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을 대하는 기쁨과 같이 한다는 행복감 역시 큰 추억거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단합력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봉사단원들과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을 꾸준히 하고, 5일 간 같이 생활하면서 어떻게 남을 배려해야 할 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5일 간의 봉사 활동은 '다음'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5일 간의 캠프 활동은 캠프 활동이 끝나면 어떤 식으로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세 번째 이화봉사단에 참여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봉사자로서 나 자신을 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수월하게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만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역사 수업을 위해서 어려운 단어 하나하나 쉬운 단어로 바꾸고, 수업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주기 위해 배경지식을 검색해보며 공부해가는 팀원들을 보며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당연히 해야 했던 노력들에, 아이들의 이해도와 아이들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팀원들을 보며 봉사자에게 필요한 자세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팀워크가 중요하다는 것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가기 전, 여러 차례 만나며 회의를 했었습니다. 회의를 거쳐서 첫 날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생각보다 모든 프로그램 활동들이 빨리 끝나서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시간이 남을 것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준비하지 못했던 터라 그냥 아이들에게 자유 시간을 주고 어수선하게 첫 날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날 저녁 프로그램 회의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아이들이 모든 활동들을 빨리 잘 하고, 아이들끼리의 속도 차이가 나는 점 등을 고려하며 프로그램 순서도 바꾸고, 새로운 프로그램도 추가하고, 시간이 남을 것을 대비해서 대책을 세우는 등 회의를 통해 문제점을 바로잡고 저희의 부족했던 점을 고쳐나갔습니다.

센터 아이들도 정말 순수하고 착했고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 아이들을 잠시 만났을 뿐이지만 나의 역할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러기에 더 조심해야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그렇게 대단하고 큰 영향력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나를 만남으로써, 그리고 우리 봉사자 선생님들로 인하여, 아이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화봉사단 활동이 보람 있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목적성을 채우기 위한 봉사가 아니라, 정말 의미 깊은 활동이었습니다. 짧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우려되지만, 이화봉사단을 통해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서로에게 좋은 에너지를 나눌 수 있었고, 또한 그 시간들이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어린 아이들과 재밌게 놀아주는 방법을 모르고 다정하지 못한 성격이라 아이들이 상처 입으면 어떡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화봉사단 신청 때부터 봉사를 가기 전날까지 두려움과 걱정의 마음이 설렘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짜고 구상하면서도 이걸 아이들이 좋아할까에 대해 계속 의문이 들고 확신이 안서다보니 오히려 준비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 더 큰 마음으로 센터에 갔던 첫 날, 사실 아이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도 어색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쉽게 장난도 못치고 눈치를 보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를 끝내고 사실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제일 컸고 그래서 다음날부터 아이들에게 더 다가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말에 리액션을 크게 해주고 눈을 마주치며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같이 놀자며 이끄는 아이들에게 웃으며 함께 놀이를 즐기다 보니 어느새 아이들도 즐거워하고 마음을 여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사 팀을 꾸려 우리가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4박 5일의 일정을 진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뜻 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첫날은 프로그램 진행시간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갈팡질팡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어떻게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시간 배분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 팀끼리 회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날은 프로그램 진행에 지루해 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해야 아이들이 좀 더 흥미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보았습니다. 끊임없이 다음날에 대해 고민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4박 5일이란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이화봉사단을 통해 얻게 된 4박 5일은 저에게 굉장히 뜻 깊게 남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라 부르며 모든 활동에 잘 참여해준 아이들을 통해 기쁨을 얻었고 또한 어린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한다는 점에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이 흥미를 잃지 않고 어려움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무엇일까 고민하기도 하며, 또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까지 봉사단원들과의 지속적인 회의와 시뮬레이션을 하며 걱정도 많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맞닥뜨리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을 하기도 하였으나 준비과정에 있어서 제가 맡은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감을 더욱 기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준비해간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재미있어하며 잘 따라오는 모습을 통해 뿌듯함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미리 준비된 워크북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금세 집중력이 흩어지는 아이들을 어르고 달래는 과정은 힘들기도 하며 지치기도 했으나, 만들기를 시작하면 다시 초롱초롱해지는 아이들의 눈과 행복 가득한 얼굴을 보면 고됨이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4박 5일 동안 아이들의 넘치는 에너지에 때론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치기도 하였으나 항상 웃음 가득한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는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이화봉사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평소에 초등학생 아이들과 만나고 접할 기회가 없어서 센터에 가서 어떻게 제가 행동을 해야 할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저는 반응을 잘해주거나 먼저 칭찬을 쉽게 해주지도 못하는 편이라서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가보니 아이들이 너무나 순진하고 착해 저에게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걸어주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덕분에 저도 낯을 가리지 않았고 아이들과 나름 짧은 시간 동안 쉽게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의 순서상 첫 번째 날에 두 프로그램 모두 다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아직 아이들도 저희를 잘 모르는데 제가 아이스브레이킹이나 자기소개를 너무 짧게 하고 마무리도 깔끔하지 못하게 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기소개를 할 때 그나마 조별로 두 선생님씩 전담해서 아이들 7명 정도와 대화를 나누다보니 아이들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시간에 서로 대화하는 것 말고도 다른 활동을 조금 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아이스브레이킹 게임은 아이들이 지루해하지 않기 위해서 활동적인 게임을 선택했는데 센터가 작아서 많이 어수선했던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짧은 시간동안 센터에서 아이들과 지내면서 아이들의 해맑은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정이 많이 들기도 했고 있는 동안 힘들기도 했지만 힘을 많이 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봉사자들이 준비한 프로그램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학생들이 하나도 없어서 너무 다행이었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또 너무 신나게 몰입해서 하는 것도 귀여우면서 고마웠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시간이 많이 없어서 롤링페이퍼 쓰고 사진만 찍고 끝냈는데 아이들이 저한테 주는 작은 선물이나 또 와달라고 하는 말 한마디가 많이 힘이 되었고 앞으로도 이화봉사단을 꾸준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센터로 가기 전에 4박 5일이 정말 긴 시간이고 과연 제가 많은 것을 배우고 올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 갔다 오니 정말 보람된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다른 동기들에게 이화봉사단 특히 새순지역을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김*정

이화봉사단 활동은 그 어떠한 봉사활동보다 저에게 의미가 컸던 것 같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했다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팀원들과 오랜 회의 끝에 실행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프로그램에 더 애착을 느꼈고,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함을 배로 느꼈습니다.

또한, 혼자만의 봉사활동이 아닌 팀으로서의 봉사활동이 처음이었던 저에게 팀워크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기획한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을 들으며 개선해나가는 과정을 거치며 이전보다 프로그램들이 더욱 더 알차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함께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중요함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과 4박 5일을 함께 지내면서 아이들로부터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함께 수업을 하고, 만들기 등을 하면서 아이들의 창의력과 열정에 놀랐던 적이 많았습니다. 봉사를 가기 전에는 제가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봉사활동이라 생각했지만, 막상 봉사를 다녀오니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에게서 좋은 에너지도 얻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아이들에게도 정말 고마웠습니다.